

# FMD(구제역) 확산 막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농장 소독과 꼼꼼한 차단 방역,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FMD 확산을 막읍시다

## 한우농가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 한우농가 방역수칙



01  
축사 내에서는 반드시  
전용 장화 착용



02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꼼꼼한  
기록 관리



03  
철저한 내·외부 소독



04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자제



05  
철저한 백신 접종 및  
백신 접종 요령 준수



06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07  
FMD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

#### 올바른 FMD 백신 접종

-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2~8°C)로 운반 및 보관
- 예방접종을 쉽게 하려면 상온(15~25°C)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 내) 사용
- 접종은 어깨 부위의 근육에 수직으로 접종
- 1침 1두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접종
- 접종한 동물은 반드시 표식(스프레이 페인트 등) 사용

FMD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1588-9060, 1588-4060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 February

02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한우자조금



#### 포커스

FMD 확산방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 자조금 소식

설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

#### 피플

한우 수출,  
프리미엄 전략을 세우다



표지 <응시> 이성렬(2009년 한우 문화공모전 당선작)

CONTENTS



04 포커스

· FMD 확산 방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08 자조금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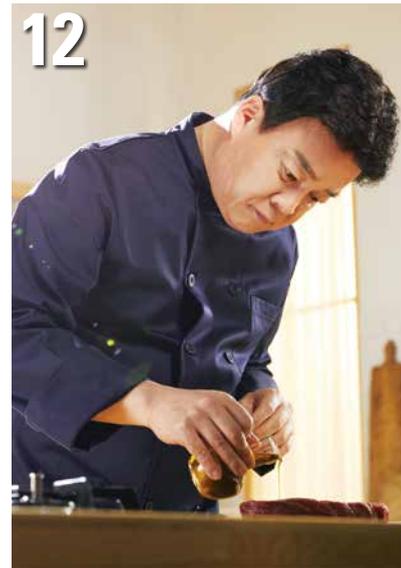
· 2017 설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  
 · 2017년 한우자조금 TV광고 촬영 현장  
 한우 스테이크, 참 쉽쥬?  
 · 2017년 원포인트 종합컨설팅 워크숍  
 개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16 미디어 속 한우

· TV는 한우를 신고, 맛을 알리다

18 이슈 브리핑

· 청탁금지법에 한숨짓는 한우산업



20 피플

· 한우 수출, 프리미엄 전략을 세우다

22 한우 시황

· 수입개방 확대에 인한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 불가피

24 농장 플러스

· 목장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감면 규정은 없나요?

25 정책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가 알려주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26 건강 플러스

· 뿌리채소와 함께 환절기 건강 지키세요



# FMD 확산방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FMD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뒤이어 전북 정읍, 경기 연천에서도 연이어 FMD가 발생하였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엄청난 격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A형과 O형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FMD가 동시에 발생했다. 2월 13일 FMD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1곳 농장에서 1,425두가 살처분된 상황이다. 더는 FMD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FMD에 대해 제대로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 FMD(Foot-and-Mouth Disease)란

FMD는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하며,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면 FMD를 의심해야 한다.

FMD는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또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난다. 공기를 통한 전파의 경우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된 보고가 있다.

## FMD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FMD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축산 농장에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농장 내 사육 중인 소는 모두 살처분, 매몰 처리하고 있다. 또한 FMD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사육 중인 소에 FMD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통과한 백신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권고하는 백신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백신 중 하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FMD는 O형과 이번에 경기도 연천에서 다른 유형인 A형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맞는 O형과 A형을 동시에 예방하는 'O+A'형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생한 O형과 A형 FMD 바이러스와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표준연구소에 적합성(매칭률)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백신 매칭 실험을 진행하여 종합 분석을 할 예정이나 1~2달의 소요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급성과 수급 문제로 인해 발생된 지역에 대해 현재 보유한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추가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을 해외에서 긴급으로 추가 수입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

## 올바른 FMD 백신접종 요령



- ☑️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 (2~8℃)로 운반 및 보관해주세요.
- ☑️ 예방접종을 쉽게 하려면 상온(15~25℃)에서 사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 내) 사용해주세요.
- ☑️ 접종은 어깨 부위의 근육에 접종합니다. 접종할 때 주삿바늘이 비스듬할 경우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직으로 접종합니다.
- ☑️ 동일한 주삿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할 경우, 주삿바늘이 오염될 수 있으니 1침 1두로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접종해주세요.
- ☑️ 접종한 동물은 반드시 표식(스프레이 페인트 등 사용)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를 확인해주세요.



의상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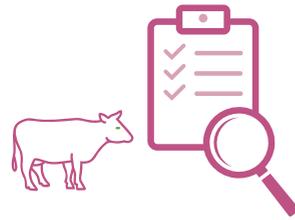


1



축산농가는 **FMD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2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 예찰을 철저히 해주세요.  
증상 : 거품 섞인 침 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에 생긴 백색의 수포와 수포 파열 후 가피(딱지) 형성, 앞발굽 사이의 수포 형성과 뒷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 잇몸 주변의 궤양, 혀에 생긴 궤양 등

3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을 해주세요.

4



농장 내·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출입 전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출입 전·후 각각 소독해 주세요.  
• 외부에서 농장 출입 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축사 전용 의복으로 환복  
• 축사 출입 후에는 장비 및 의복 관리(세척, 소독, 폐기 등) 철저히 하고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5



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주 1회 이상 소독해주세요.

## FMD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소독 및 차단방역

# 10

가지

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하지 않는 등 방역교육을 해주세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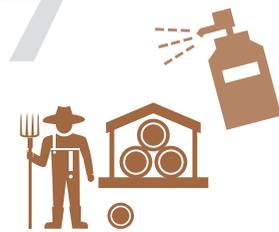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 등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매몰·소각** 등으로 처리해 주세요.

8



**쥐·야생동물** 질병 전파의 우려가 크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 및 정기적 구서 작업(쥐잡기 등)을 해주세요.

7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설치류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6



축사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가 설치되고, 소독액은 2~3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해 주세요.

# 2017 설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설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장바구니는 알뜰 장만한 한우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한우홍보대사인 배우 지진희 씨의 등장까지. 현장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한우 직거래 장터가 열린 청계광장을 찾았다.



## 봄비는 인파, 추운 날씨에도 후끈

오전 9시, 눈 쌓인 청계광장으로 시민들이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무대에는 ‘설레이는 설 명절, 한우와 함께’라는 문구가 걸려 눈길을 끌었다. 설 연휴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청계광장에는 벌써 명절이 온 것 마냥 흥겨움이 가득했다. 판매부스에 줄지어 선 소비자들 외에도, 곳곳에 마련된 난로 앞에서 삼삼오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사물놀이패의 놀이 한마당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훈훈한 미소가 넘쳤다.

이날 청계광장에는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하늘소’와 전북완주한우협동조합 ‘고산미소’의 부스가 마련되어 산지 직송한 신선한 한우를 최대 40% 가까이 할인해 판매했다. 특히 명절에 많이 찾는 부위인 불고기·국거리가 2,800원(1등급 100g 기준), 짬갈비 6,000원, 양지 3,300원, 산적 3,000원에 준비되었으며 등심 5,000원, 채끝 5,300원, 특수 부위 6,500원 등으로 알뜰 설맞이에 나선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방송을 통해 행사 소식을 접하고 명절에 쓸 한우를 장만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한 소비자는 “명절이면 물가가 더 올라 준비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직거래 장터를 통해 한시를 덜었다”며 “다음 명절에도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파격적인 가격 외에도 1++, 1+의 고급 한우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도록 준비해 한우 등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 지진희 씨가 소비자를 위해 한우를 굽고 있다.

## 배우 지진희 등장에 유커들 환호

추운 날씨에 아랑곳없는 소비자들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방송과 신문 등 각종 매체의 카메라는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다. 모여든 취재진은 한우홍보대사인 배우 지진희 씨의 행사 진행 모습과 시민들의 즐거운 모습을 담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일일판매원으로 직거래 장터에 모습을 드러낸 지진희 씨는 한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일일이 미소를 나누고 손수 스테이크를 구워 대접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진희 씨는 “우리한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며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촬영 카메라에 인사를 건넸다.

지진희 씨와 팬들의 포토타임 중에는 행사장을 지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류스타인 지진희 씨에게 단채로 환호를 보내는 즐거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진희 씨는 관광객들이 청하는 기념촬영에 기꺼이 응하며 환호에 보답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도 관심이 많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은 “드라마 속에서 보던 지진희 씨를 실제로 만나보니 기대보다 더 멋지다”는 소감과 더불어 “오늘 시식한 한우가 정말 맛있어 꼭 다시 맛보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 명절 맛이 필수코스로 자리매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한우 직거래 장터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함께 열려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시시각각 이어진 시민 참여 이벤트와 시식 코너, 사물놀이 공연 등은 구매를 의도하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물론 우연히 근처를 지나는 이들의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행사장은 미리 찾아온 명절의 흥겨움으로 가득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 추첨이 준비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비자가 직거래 장터를 찾아주었다”며 “한우 직거래 장터가 한우 소비 저변확대를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설맞이 직거래 장터의 판매액은 3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행사 이튿날인 토요일 오후에는 일부 품목이 조기 품절되는 등 추운 날씨에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명절 맛이 직거래 장터와 같은 내실 있는 행사로 지속적인 한우 소비촉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우 직거래 장터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앞서 치솟는 물가에 얼어붙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질 좋은 한우를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명절을 맞는 소비자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중국인 관광객들과 배우 지진희 씨의 포토타임



한우 인형탈을 쓴 서포터와 아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물놀이 공연 모습

▶(왼쪽부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 한우홍보대사 지진희 배우,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2017년 한우자조금 TV 광고 촬영 현장  
한우홍보대사 백종원

## 한우 스테이크, 참 쉽죠?

2017년 한우자조금 신규 TV 광고 촬영이 파주 탄현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광고 모델은 바로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집밥 열풍, 맛집 발굴 등 대한민국 식탁문화를 바꾼 백종원 씨가 올 한해 한우의 맛과 영양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약한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3대 천왕> 등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단한 활약을 하는 백종원 씨는 이미 국민 요리선생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스타 중 스타다. 그가 방송에서 공개한 레시피는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해봤을 정도다. 이번엔 한우고기 레시피를 들고 카메라 앞에 나섰다. “스테이크 할 수 있는 한우 부위 참 많죠?”



한우 앞다리살과 꼬리살을 양손에 든 백종원 씨 특유의 구수한 사투를 쓰며 요리를 시작한다. 평소 요리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한우 스테이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광고의 특징. 먼저 소금과 후추로 밑간하고 올리브유를 듬뿍 바른 후 달궈진 프라이팬에 두툼한 한우고기를 올린다. 불 조절을 하며 잘 구운 다음 마지막에 버터로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면 스테이크가 완성된다. 직접 만든 스테이크를 주변 스태프들에게 권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그가 소개한 레시피는 바로 국민 레시피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광고를 통해 소개하는 한우 스테이크도 대단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금 소식 **03** NEWS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원포인트 종합컨설팅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한우협동조합 연합회가 주관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여 명의 한우협동조합 컨설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현재 한우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컨설팅 방향, 그리고 향후 시행될 정책 등에 대한 교육으로



2017년 원포인트 종합컨설팅 워크숍 개최

이뤄졌다. 한우농가 컨설팅 교육은 서울대학교 김현진 박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하림중앙연구소 이주환 박사, 종축개량협회의 이길환 팀장의 강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컨설팅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관련 교육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김현진 박사는 생산비 절감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사양방안으로 도축 월령 단축, 도체중 증가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경제형질의 유전능력향상, 육성 시 사양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스트레스가 육색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사육 시 스트레스 관리와 수송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림중앙연구소 이주환 박사는 일본 화우의 개량과정을 들어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기 이유, 조기 거세 등 조기 비육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강의했다. 이주환 박사는 최근 미국, 일본 등에서 2개월 조기 이유가 시도되고 있음을 밝히며 어미 소의 번식효율 향상과 송아지의 사료 효율 개선 등 조기 이유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종축개량협회의 이길환 팀장은 컨설팅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컨설팅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컨설팅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길환 팀장은 육종가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우계획교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

자조금 소식 **04** NEWS

한우 사육두수 감소, 번식농가 감소, 쇠고기 수입량 증가 등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농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역재단에 위탁한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사업조직 유형별 현황 밝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국의 한우사업조직 유형별 현황은 지역축협 이외의 한우사업조직은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일반협동조합, 한우품목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한우영농조합법인이 276개로, 17개인 한우일반협동조합과 8개인 한우품목협동조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농조합법인과 일반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조직은 특정 영역의 단일 사업 또는 2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실하거나 소규모 사업조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선도농가 76.6%, "연합조직 필요"

한우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우선도농가 중 지역축협 이외의 한우사업조직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의 비중은 41.5%로, 지역축협 이외의 사업조직에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점 만점, 축협 2.79점, 축협 이외 조직 3.34점). 한우산업 사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76.6%가 "사업조직의 연합조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조직 간 소통의 공간 마련과 공동사업 발굴에 힘쓰고, 사료구매·판로확보 등 사업을 지원하며, 법제도 개선 등 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우사업조직 발전과제, 전국연합회 설립 방안,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사업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우사업조직의 발전 방향과 과제, 한우사업조직 전국연합회 설립 방안, 한우협회의 역할과 과제, 법제도 개선과제로 세분화하여 오른쪽 박스와 같이 마련하였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우사업조직의 발전과제

- 대규모 사업조직은 '한우전문조합', 소규모 사업조직은 특화(특새)영역 사업 모델의 발굴 등 한우사업조직으로 발전
- 한우전문조합 지향 시 한우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 한우 전문 경영 역량의 강화 등

한우협회의 역할과 과제

- 협회가 한우사업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
- 협회가 사업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능 담당
- 협회가 한우사업조직의 사업수행을 측면 지원, 사업조직 간 중재자 역할 수행
- 협회가 사업조직 연합회 설립을 주도 등

법 제도 개선 과제(총 15건)

- 농협법 개정(4건), 축산관련법 개정(2건), 다양한 한우사업조직 관련 법 개정(3건), 제도 개선 과제(6건) 필요

1월 방송에 소개된 한우

# TV는 한우를 싣고, 맛을 알리다

한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2017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아 1월에는 방송 3사와 JTBC, 채널A 등의 교양·예능프로그램과 TBS 라디오에서 한우를 소개했다. 한우 직거래 장터의 현장과 한우 보관·요리방법, 한우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한우의 맛을 알려 소비자가 편하게 구매하도록 힘썼다.

## 2017년 1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우

매체	프로그램 명	방영일시
SBS	모닝와이드	01. 20(금)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01. 23(월)
MBC	생방송 오늘저녁	01. 25(수)
KBS-2TV	노래싸움 - 승부	01. 06(금)
		01. 13(금)
		01. 20(금)
KBS-1TV	노래가 좋아	01. 27(금)
		01. 07(토)
		01. 14(토)
SBS	인기가요	01. 21(토)
		01. 28(토)
		01. 28(토)
SBS	고추장떡말이	01. 28(토)
MBC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01. 27(금) ~ 01. 28(토)
MBC	듀엣가요제	01. 27(금)
채널A	싱데렐라	01. 27(금)
SBS	희극지왕	01. 28(토)
JTBC	어머님이 누구니	01. 28(토)
TBS 라디오	설특집 교통방송	01. 18(수) ~ 01. 30(월)



MBC <생방송 오늘저녁>

### 한우, 얼마나 맛있게요

설을 맞이해 1월 25일,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 한우를 이용한 요리가 공개됐다. 한우의 꽃인 등심,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안심과 양지 3종을 이용한 레시피가 소개됐다. 양지를 이용한 요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한우 버섯묵국'이다. 한입 크기로 자른 양지에 흰목이버섯과 황금팽이버섯을 곁들여 영양까지 살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로는 등심을 이용한 '한우 새송이버섯 피자'가 소개됐다. 새송이버섯을 피자 도우로 만들어 그 위에 등심과 파프리카를 올려 맛과 영양을 높이니 맛깔스러운 색상이 연출됐다. 안심으로 만든 '한우 고추장떡말이'는 술안주에 좋은 요리로 공개됐다. 울리고당과 청주를 넣어 만든 특제 고추장 소스와 한우가 만나 부드러우면서도 매콤한 맛의 음식을 만들어졌다. 비슷비슷한 명절 음식에서 탈피한 요리가 소개된 방송을 통해 한우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SBS <인기가요>

### 현실 케미 돌는 남매로 재미 더한 한우송

1월 22일에 방영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악동뮤지션이 한우송을 불렀다. 귀에 짹 감기는 멜로디와 '한우 먹으러 가자~ 우리 땅에서 정성으로 키운 우리 한우 참 맛있는 한우, 소중한 사람 당신과 함께 먹고 싶어요' 등 귀에 쏙쏙 들리는 가사에 재미있는 표정과 익살스러운 포즈를 더해 귀여운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다. 자다가도 일어나는 한우, 같이 먹는 맛 좋은 한우,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한우를 주제로 한 이번 한우송은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를 통해 한우에 대한 친근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MBC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 설 선물은 역시, 한우세트

리얼리티 예능에도 한우가 등장했다.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방영된 MBC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에서는 인기 셰프 오세득이 걸 그룹 우주소녀 숙소를 방문해 한우 만찬을 선보였다. 스타 셰프 손에서 공개된 황제 소고기묵국, 한우구이, 한우 미역국, 한우 카레는 등심과 안심으로 이용한 요리법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다. 이 요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활용한 요리를 집에서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올레산(Oleic Acid)이 풍부한 한우고기의 장점을 언급해 한우 소비촉진을 일으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 특집 방송인 KBS <노래가 좋아>, <노래싸움-승부>과 MBC <듀엣가요제>, SBS <희극지왕>, JTBC <어머님이 누구니>, 채널A <싱데렐라> 등에서 우수상 팀이나 인기상 팀에게 한우세트를 지원해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다시금 인식시켰다. 🍲

# 청탁금지법에 한숨짓는 한우산업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지난 설 한우 소비에 직격탄을 날렸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좀 더 투명하고 긍정적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단 부정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 우려 속에 시작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를 막아보자고 시작한 일에 한우산업이 궁지에  
몰렸다. 한우 사육에 평생을 바친 농가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다. 대를 이어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해온 한 대표는 “둔갑판매가 성행하던  
시기에도 고기 맛이 달라지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고집으로 독심 있게 이어온 식당이다. 이 식당이  
이젠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김영란법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한우전문점은 곧 가서는 안 되는 집처럼  
인식됐고, 대를 이어 이어온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법의 도입 시기부터 여러 문제를 지적했고,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정치권의 주장과 여론에 밀려 도입이  
돼버린 것이다. 이후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정의사회  
구현이다 보니 한우업계의 입장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정치권에도 이런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업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 설 명절에도 한우 소비 위축

지난 1월 한우 출하 두수는 총 4만  
6천206두였다. 평균 경락가격은  
1만5천601원/kg으로 나타났다. 전년  
1월의 경우 한우 출하 두수는  
5만1천276두였고, 평균  
경락가격은 1만8천550원이었다.  
등급별 가격 차를 살펴보면

1++는 지난해 2만1천708원/kg에서 올해는  
1만9천511원/kg으로 하락했다. 1등급의 경우  
1만8천835원/kg에서 1만5천889원/kg으로 떨어졌다.  
농가의 두당 수취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30만원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출하 두수가 줄었음에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다.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면 오르게 돼 있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렇게 공급량  
감소와 가격하락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월 한우 가격이 평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일은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설을 앞두고 한우의 출하량이  
많아진다. 출하량이 많아짐에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우 가격이 평소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차상계류라는 말은 명절을 앞두고 출하물량이  
넘쳐 소들이 공판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이런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번 설을  
보내면서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했음을 현실로 확인한 셈이다.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수입육 판매에만 유리한 현 청탁금지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우리의 자부심, 명품 한우

한우는 국내 농산물 중 대표적인 명품이다. 한우가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농가들은 물론 업계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쇠고기  
수입개방 후 품질 차별화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한우를  
고급육으로 만들기 위해 등급제를 일찍이 도입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한우고기를 만들기 위해 거세  
고급육 사양기술을 도입했고, 장기 비육을 통해 깊은 맛이  
나는 한우고기를 만들어 냈다.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농가들이 스스로 나서 유통감시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이력제를 도입해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힘겹게 걸어 만들어낸 명품 한우다. 이런  
**명품 한우의 이미지가 청탁금지법 하나로 훼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부심으로 한우를 키우던 농가들과 명품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공급량이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우 농가 중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게 되고, 결국 한우 생산기반이 붕괴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가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 명절을  
보내면서 한우는 더는 어렵겠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한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수출 컨설턴트 기본글로벌 이준호 대표

## 한우 수출, 프리미엄 전략을 세우다

2012년, 육류 업무를 담당하던 상사맨 이준호 대리는 홍콩 리테일 매장 식육코너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 와규를 발견했다. ‘국내 유통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한우를 홍콩에 수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우 수출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수출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홍콩으로의 첫 한우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내 최초로 한우 수출을 성사시킨 수출 컨설턴트 기본글로벌 이준호 대표를 만나 홍콩 시장 현황과 수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한우 수출 업무를 시작한 계기와 국내 최초로 한우 수출을 성사시킨 일을 소개해주세요.

2012년에 대우인터내셔널의 상사맨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홍콩에, 호주산 쇠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홍콩 출장으로 간, 리테일 매장을 둘러보던 중 일본 와규가 홍콩에서 최고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 대 정부의 검역, 위생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우의 해외수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한우의 질이 와규 못지않은데 수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우 수출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로 2015년 11월에 검역·위생협정이 맺어지면서 한우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회였죠. 3년 동안 홍콩 바이어들에게 끊임없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었기에 협정을 맺은 뒤 12월에 바로 한우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등심 600kg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 현재 홍콩 내에서 한우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2015년 12월 첫 수출 후 초반 6개월은 홍콩 시장에서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와규만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프리미엄 소고기 시장에 한국산 프리미엄 소고기 ‘한우’가 소개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발 수출업체들이 무리하게 수출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한우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냉동 한우가 증저가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한우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우 수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또 극복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본 와규의 수출 전략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본 와규는 고급육 브랜드를 내세워 호주나 미국산 쇠고기보다 몇 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홍콩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홍콩에 수출된 이후로 지금까지 프리미엄 지위를 유지하며 주변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값은 비싸지만 고기의 질이 좋으면서 공급량이 적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먼저 ‘한우’라는 한국의 우수한 소고기를 홍콩 시장에 널리 알리고, ‘한우’가 시장에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았을 때, 지역별 한우 브랜드의 특징과 우수성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초반부터 200개가 넘는 지역의 한우 브랜드가 저마다의 컨셉으로 수출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고급육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 적립과 이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 현재 일부 지역의 FMD 발생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FMD가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을 수 없지요. 현재 판매되기로 했던 일부 물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 의향이 높은 편입니다. 한우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다행히 제도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FMD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한우는 수출이 허용되고 있으니까요.

### 한우 수출 전반을 컨트롤 할 ‘한우수출협의회’가 지난해 5월 출범하였는데요.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우수출협의회는 한우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시장개척 등 한우 수출 전반을 컨트롤할 민·관·학 협의체입니다.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질, 위생 등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면서 운영하게 되었지요. 수출용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수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한우의 홍콩 수출 물량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방안과 향후 홍콩을 기반으로 동아시아권 진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요?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 적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축산 산업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출 전략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우를 수입하는 현지 바이어들이 한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홍보책자 제작, 박람회 전문 프로모터 지원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한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가 형성된 홍콩 시장을 발판삼아 마카오,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

#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 불가피



**사육 전망**

**2017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 지속 예상**

-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고 거세우 출하 대기 물량이 늘어 2017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6년의 269만 마리보다 0.9% 감소한 267만 마리로 예상.
- 2018년에는 265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공급 전망**

**2017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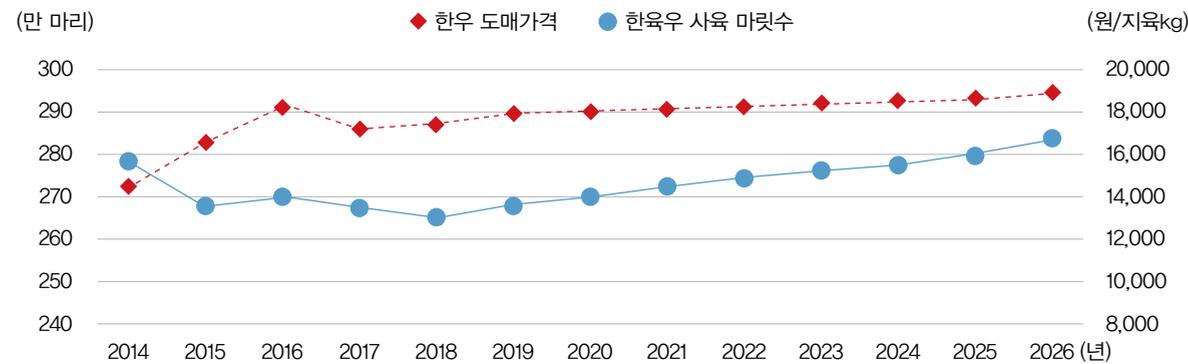
-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7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16년보다 3.5% 증가한 22만7천 톤으로 전망. 2018년 사육 마릿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19년(22만1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6년에는 25만3천 톤으로 전망.

**가격 전망**

**2017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예상**

- 국내 생산 증가로 2017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2016년 1만8천141원(650만원/600kg 환산)보다 5.0% 하락한 1만7천230원(617만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2018년에는 1만7천405원(623만원), 2021년 1만8천276원(655만원), 2026년 1만8천957원(679만원)으로 전망.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 1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1월 26일 기준

구분	평년 (2012~2016)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대비(%)			
		12월(A)	1월(B)	12월(C)	1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74,554	98,934	71,142	90,111	△4.6	△8.9		
경매두수(두)	443,339	42,153	49,119	39,554	45,734	△6.2	△7.0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4,563	17,664	18,639	15,775	15,617	△10.7	△16.2	
	거세우	15,530	18,262	19,259	16,258	16,114	△11.0	△16.3	
	비거세우	11,746	15,314	16,308	13,020	12,822	△15.0	△21.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4,364	5,706	5,785	5,580	5,354	△2.2	△7.5	
	송아지	암	1,762	2,537	2,621	2,576	2,542	1.5	△3.0
		수	2,421	3,096	3,228	3,000	3,017	△3.1	△6.5
불고기 (1등급/kg)	34,227	41,860	42,310	45,924	45,435	9.7	7.4		
등심 (1등급/kg)	64,940	77,450	78,550	78,413	77,938	1.2	△0.8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1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

1월 26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9,019	6,835	5,527	1,308
1+	16,572	5,956		429
1	15,503	5,572		45
2	13,301	4,780		△747
3	10,784	3,876		△1,651

※경영비 : 2016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5,527천원/600k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목장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감면 규정은 없나요?



목장을 운영하는 전목장 씨는 10년간 축산업을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하면서 모두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은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일 내야 한다면 감면 규정은 없는지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sup>1)</sup>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경농지<sup>2)</sup>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것과 같이,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69조의 2). 즉,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인 경우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 2억원(5년간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자경농지 감면 규정과 달리, 축산업의 폐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축사용지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부분만으로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외에도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경농지와 축사용지 감면 규정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규정으로서 기간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경농지로 5년, 축사용지로 5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 감면과 축사용지 감면 모두 각각 8년 이상 감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농어촌공사 등에 2018. 12. 31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2) 경제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농림축산식품부가 알려주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2017년이 밝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축산업 종사자분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p><b>1</b></p> <p><b>받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b></p> <p>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T 044-201-17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월부터 받고정직불금도 쌀고정직불금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 단가를 구분하여 지급(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원/ha, 밖은 약 43만원/ha이며 평균 단가는 45만원/ha)</li> </ul>	<p><b>2</b></p> <p><b>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b></p> <p>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T 044-201-15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사항 폐지</li> <li>• 사업담당자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li> </ul>	<p><b>3</b></p> <p><b>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b></p> <p>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T 044-201-24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li> <li>•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관리기관) 농진청·농관원 → 농관원, (제도운영) 공시·품질인증 → 공시</li> </ul>
<p><b>4</b></p> <p><b>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b></p> <p>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T 044-201-20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li> <li>•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li> </ul>	<p><b>5</b></p> <p><b>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b></p> <p>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 044-201-17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안전보험)주계약 4형 신설 ※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인상</li> <li>•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상해특약 신설(자기신체손해 + 위자료·휴업손해 등까지 보상),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 특별계약 중 선택 가능</li> </ul>	<p><b>6</b></p> <p><b>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b></p> <p>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T 044-201-22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16개→20개)</li> <li>•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 확대</li> <li>•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원료 2순위 표시→3순위)</li> <li>•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li> <li>•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b>7</b></p> <p><b>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b></p> <p>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T 044-201-22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강화</li> <li>•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시행</li> <li>•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li> </ul>	<p><b>8</b></p> <p><b>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b></p> <p>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T 044-201-23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판매 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li> </ul>	<p><b>9</b></p> <p><b>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b></p> <p>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T 044-201-23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무면허진료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li> </ul>

# 뿌리채소와 함께 환절기 건강 지키세요

거친 땅속에 잔가지를 내리고 가장 좋은 기운만 모아 단단하게 맺었다. 뿌리채소는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지녀 많은 이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다. 알면 알수록 똑똑하고 건강한 뿌리채소로 환절기 건강 제대로 지키자.



고려 시대부터 역사를 이어온 더덕은 한국의 토종 뿌리채소다. 특히 폐의 기능을 돕는 약성이 탁월해 건조하고 황사가 많은 환절기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다. 애연가였던 조선 정조는 탕약에 인삼 대신 더덕을 넣어 몸을 보했다고 전해진다. 당근도 대표적인 뿌리채소로 아삭하고 촉촉한 식감에 달콤한 맛을 지녀 요리에 두루 쓰인다. 카로틴과 식이섬유, 비타민K, 루테인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한다. 특히 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에 볶거나 고기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



## 한우 더덕구이

- 재료 및 분량** 한우 업진살 300g, 더덕 2개, 마늘 1큰술, 참기름, 잣가루 약간  
**고기 양념장** 진간장 1큰술, 설탕 1½큰술, 다진 파 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약간  
**더덕 양념장** 고추장 2½큰술, 조청 ½큰술, 설탕 ½큰술, 마늘 1½큰술, 양파즙 1½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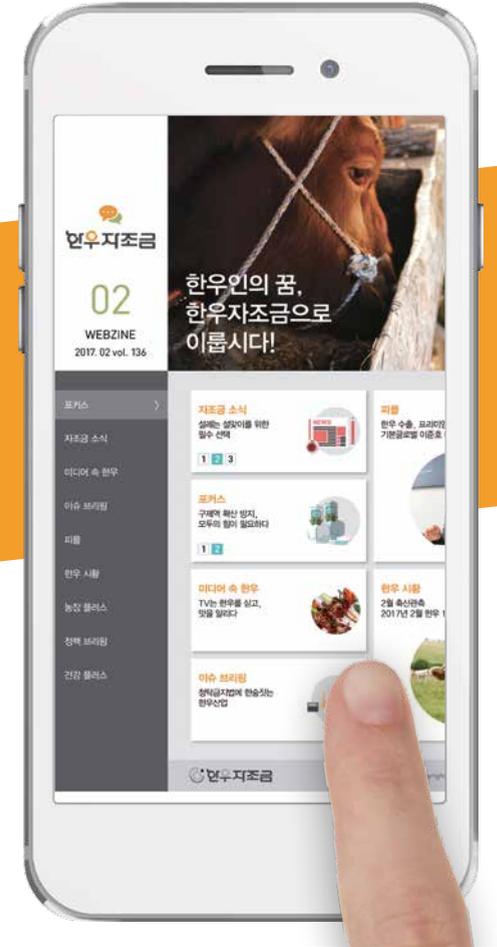
### 만드는 방법

- 1 업진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 양념장에 10분 정도 재운다.
- 2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세로로 길게 썰고 납작하게 포 떠서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편다.
- 3 ②에 더덕 양념장을 발라 재운다.
- 4 고기와 더덕을 차레로 팬에 구운 다음, 석쇠에 다시 살짝 구워 불맛을 낸다.
- 5 접시에 쪼갠 더덕이 담고 잣가루를 뿌린다.

#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이 3월 새롭게 문을 엽니다.

PC·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통해 구독하시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



## 한우자조금, 제4기 출범을 위한 선거 실시

(3월 16일,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결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출범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대의원의장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감사
선출인원	1명	17명	1명	2명
임기	2년	4년	2년	2년
선거일	2017. 3. 16.(목) 13:00			
선거장소	대전 KT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1층, 중강당			

※현재 FMD(구제역)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17.2.9)된 상황으로 선거일까지 심각단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선거일은 연기되며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변경 후 재고지할 예정입니다

